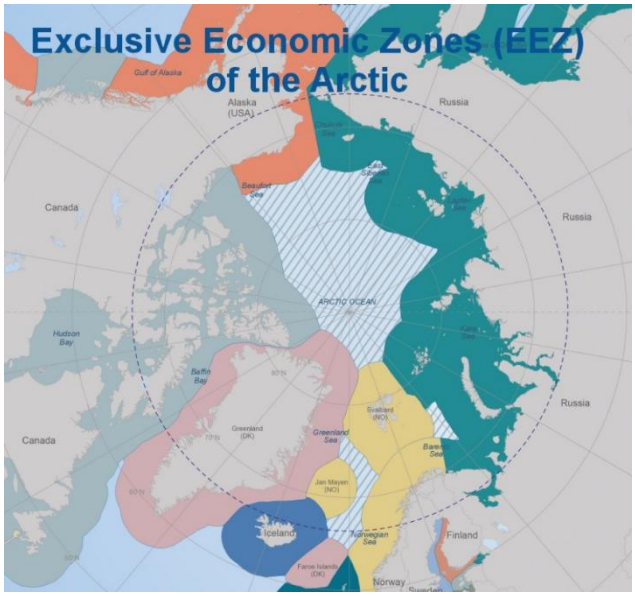
Global Watch

그린란드와 북극:
가장 추운 땅에서 진행되는 가장 뜨거운 경쟁

이승우_swlee6591@

- 10세기 바이킹의 그린란드 진출은 낭만적 모험이 아니라 상아라는 고가 자원을 겨냥한 경제적 선택
- 중세 온난기는 북대서양의 항해창(navigation window)을 열었고, 그린란드는 상아 공급망의 출발점으로 부상
- 그러나 기후 냉각과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라는 대체재의 대량 유입은 단일 자원 의존 경제의 붕괴를 초래
- 21세기의 급격한 온난화는 다시 북극을 열고 있으며, 이번에 주목받는 자원은 희토류와 북극해의 천연가스
- 핵심은 자원의 정제·공급망·통제 권한과 새로운 교역로이며, 이 점에서 그린란드가 중요한 후보지로 부각
- 북극해의 면적은 지구 표면의 3% 미만이지만, 미개발 천연가스의 30%, 미개발 원유의 13%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 이는 북극해가 대륙붕 비중이 약 40~50%에 달하는 특이한 접시형 구조이기 때문
- 북극해의 자원과 항로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미·러·캐·노·덴마크(그린란드) 5개 연안국 간에 진행 중
- 미국은 북극해 영역 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통제·규칙·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의도
- 덴마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영토를 축소했지만, 그린란드는 '미래 옵션'이라는 판단으로 끝까지 보유
- AMSA(2009)와 이후 북극 위원회의 보고서들은 북극을 '비항로'에서 계절적·보험 가능한 항로로 새롭게 규정
- 북극의 가치는 항해창의 완전한 개방은 아니더라도 부분적 개방이라는 옵션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에서 발생
- 한국 역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교역로를 약 30%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

북극해 주변 5 개국의 EEZ 상황



자료: Arctic Portal

한국 시각에서 본 북극 항로

자료: 매일신문

천 년 만에 다시 높아지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

역사는 종종 극단의 공간에서 방향을 바꾼다. 사막의 오아시스, 산맥의 고개,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변방이 그러했다.

연평균 기온 -6℃ 그린란드는 오랫동안 문명의 중심이 아니었다. 얼음, 바람, 고립.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이 섬은 늘 세계의 끝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장 추운 땅이 가장 뜨거운 경쟁의 무대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왔다.

10 세기 말, 북유럽의 바이킹들은 그린란드로 향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국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가 자원인 바다코끼리의 상아를 쫓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21 세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린란드는 고가 자원의 중심지로 부상 중이다. 이번에는 희토류와 천연가스가 그것이다.

이 천년의 시간을 연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후, 기술, 그리고 교역 구조가 맞물릴 때, 변방은 다시 중심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다.

바이킹에게 그린란드는 상아 공급의 출발점

바이킹의 그린란드 진출은 흥미로운 모험담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냉정한 경제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해석해왔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사를 지배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자원 개발과 교역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 세기 전후 유럽에서 상아는 최고급 물자였다. 체스 말, 성상, 성물함, 주교의 의장품, 왕족의 장신구 등에서 상아는 권력과 신성의 물질적 표현이었다. 당시 유럽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는 이슬람 상인들이 통제하고 있었고, 정치적·종교적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대서양의 바다코끼리 상아는 기독교 세계 내부에서 조달 가능한 현실적인 자원이었다.

한편 이 시기는 우연히도 중세 지구 온난기와 겹쳤다. 북대서양과 그린란드 남서부의 해빙이 완화되면서, 여름철 네비게이션 윈도우가 형성되었다. 바이킹에게 필요한 것은 왕복이 가능한 몇 달 간의 윈도우면 충분했다. 10 세기 초 바이킹에게 그린란드는 '추운 섬'이 아니라 상아 공급망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바다코끼리의 눈물: 단일 자원 경제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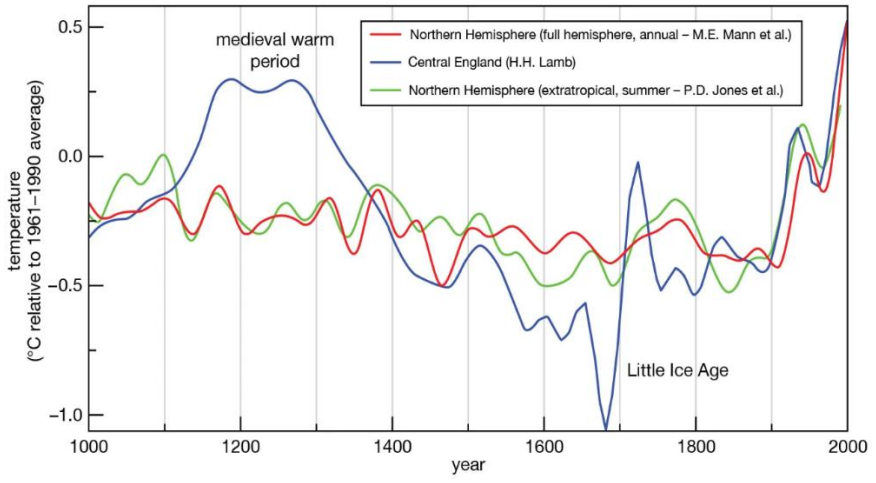
그러나 그린란드의 번영은 길지 않았다. 13 세기 이후 지구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1257 년 사말라스 화산의 초거대 분화는 성층권 에어로졸을 통해 수년간 지구를 냉각시켰고, 중세 온난기의 종식을 가속하며 유럽 사회를 장기 취약성의 궤도로 밀어 넣고 말았다. 이로 인해 차가워진 북극해의 항로 불확실성은 다시 높아졌다. 해빙이 늘어나면서 교역은 단절되기 쉬워졌고, 그린란드는 유럽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끈을 놓치게 되었다.

동시에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의 유입이 증가한 것이다. 코끼리 상아는 물성이 더 우수했고, 사이즈 면에서도 대형 조각품에도 적합했으며, 공급 규모도 컸다. 유럽의 고가 전략 물자였던 바다코끼리 상아는 더 우수한 자원에 의해 대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린란드 사회는 단일 고가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하지만, 그것이 흔들리자 사회 전체가 흔들렸고, 그린란드는 다시 차가운 얼음 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이다.

10 세기 중세 온난화 시기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린란드를 통한 바다코끼리 상아 무역이 활성화됨

도표 1. AD 1000 년~2000 년 사이 북반구 온도



자료: Britannica

다시 열리는 북극과 북극 대륙붕

하지만 21 세기 들어서며 그린란드는 다시 소환되고 있다. 이번에는 상아가 아니라 희토류와 에너지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북극을 또 다시 바꾸고 있다.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북극해 항로는 계절적으로 열리고, 접근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그 동안 변방이었던 그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경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와중에 희토류는 21 세기의 상아로 부상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희토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정제되고, 누가 공급망을 통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날 이 병목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다. 북극의 가스는 당장의 최적 자원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기 시 작동하는 옵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북극권 (북위 66.5 도 이상)의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4%에 불과하다. 북극해는 3% 도 채 되지 않는다. 북극해의 면적은 태평양의 1/12에 불과지만 이 작은 바다는 미개발 천연가스의 약 30%, 미개발 석유의 약 13%를 품고 있다고 한다.

이 불균형은 북극해의 독특한 지형 구조 때문이다. 북극해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깊은 해구가 지배하는 바다가 아니라 평균 수심 약 1,200m 의 얕은 바다이다. 북극해는 광범위한 대륙붕과 확장된 대륙붕(ECS)이 북극점 인근까지 이어지는 접시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해의 대륙붕은 캐나다 북극 제도 아래에 있는 캐나다 북극 대륙붕과 더 큰 규모의 러시아 대륙붕 등 여러 대륙붕으로 구성된다. 러시아 대륙붕은 바렌츠 대륙붕, 축치해 대륙붕 및 시베리아 대륙붕의 세 가지 개별적인 작은 대륙붕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중 시베리아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붕이며, 막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축치 대륙붕은 소련-미국 해양 경계 협정에 명시된 대로 러시아와 미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지구 전체 해양에서 대륙붕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8%에 불과하지만, 북극해는 이 비중이 40~50%에 달한다. 북극해는 작은 바다이지만, 가장 넓은 대륙붕을 가진 바다라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

도표 2. 5대양의 제원 비교

대양	전체 면적 (백만 km²)	평균 수심 (m)	대륙붕 면적 (백만 km²)	대륙붕 비중
태평양	**165.3**	**~4,000**	**3~4**	**~5-7%**
대서양	106.5	~3,650	10~12	~9-11%
인도양	70.6	~3,700	5~6	~7-9%
남극해	20.3	~3,200	2~3	~10-15%
북극해	**14.1**	**~1,200**	**6~7**	**~40-50%**

자료: UNESCO, NOAA, USGS

도표 3. 북극해 자원 매장량 추정치

구분	석유 (억 배럴)	천연가스 (조 ft³)	LNG 환산 (억 톤)	비고
북극해 전체	~900	~1,670	~470	전 세계 미발견 가스의 약 30%, 석유의 13%
러시아 북극권	~410	~1,160	~325	북극 가스의 최대 보유국
북미(미·캐)	~200	~250	~70	알래스카·북서부 캐나다
그린란드 인접	~170	~150	~40	상업성은 아직 불확실
기타(노르웨이 등)	~120	~110	~30	바렌츠해 중심

자료: USGS Arctic Resource Assessment

도표 4. 북극권 및 그린란드 자원 매장량 추정 현황

자원	북극권 잠재력	그린란드 비중	전략적 의미
희토류(REE)	중~상	**매우 높음**	중국 외 대체 공급지 후보
우라늄	중	**높음**	에너지·안보 이중 용도
아연	중	높음	유럽 산업 연계
니켈	중	중	배터리·합금
구리	중	중	전력·재생에너지
철광석	중	중	북극권 전반 분포

자료: USGS Arctic Resource Assessment

다섯 나라의 바다: 북극해의 지분 현황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는 다섯이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그린란드). 이들은 모두 북극해 연안국이며, EEZ 와 확장 대륙붕을 통해 자원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미국의 약점은 분명하다. 자원 그 자체의 지분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입장에서의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도표 5. 북극해 연안 5 개국의 추정 지분 현황

국가	EEZ 면적 (약)	비중 (%)	비고
러시아	약 600 만 km^2	**45-50 %**	가장 긴 연안과 가장 넓은 EEZ·ECS. 북극해 해저의 절반 가까이에 영향력. 가스 중심의 에너지 제국.
캐나다	약 300 만 km^2	**20-25 %**	북극군도와 북서항로를 끼고 상당한 지분 확보
덴마크/그린란드	약 225 만 km^2	**15-18 %**	면적 대비 인구는 작지만,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점 인근까지 ECS 를 주장할 수 있는 지리적 레버리지 보유.
노르웨이	약 100 만 km^2	**7-8 %**	바렌츠해 중심의 비교적 명확한 권리 구조, 북극 개발의 '현실적 모델'
미국(알래스카)	약 50 만 km^2	**3-4 %**	알래스카를 통해 북극해에 진입하지만, 지분은 상대적으로 작음. 대신 군사·기술·금융으로 영향력을 보완.
그 외(국제수역)	약 150 만 km^2	**10-12 %**	각국 EEZ 이외 중앙부 국제수역(High Seas)

자료: 유진투자증권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영토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평가이다. 미국은 이미 20 세기 중반부터 그린란드를 본토 방어의 외곽선으로 인식해왔다. 트럼프가 태어났던 1946 년에 이미 트루먼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1 억 달러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덴마크에 제시했던 적이 있었다. 미국 전략의 핵심은 216 만 km^2에 달하는 그린란드의 영토 소유가 아니라 통제에 있는 것이다.

이는 10 세기 바이킹의 접근 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바이킹은 바다 코끼리를 잡아 상아를 캐기 위해 그린란드에 갔다. 미국은 희토류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누가 캐고 누가 쓰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극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를 누가 캐고 누가 공급할 것인지를 통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린란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선택과 축소의 역사, 그리고 그린란드

중세 북해 제국의 중심이었던 덴마크는 19 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왔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덴마크는 중립을 지키려 했으나, 1807 년 영국의 코펜하겐 폭격으로 프랑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덴마크가 맞닥뜨린 결과는 참담했다. 1814 년 킬 조약으로 덴마크는 직할 영토인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페로 제도는 잃지 않았지만 말이다. 당시 이 지역들은 전략적 크지 않았었기 영국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덴마크는 점점 더 작은 국가가 되었다. 1864 년에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현재 덴마크 남부와 독일 함부르크 사이 지역)을 상실했다. 덴마크는 더 이상 군사 강국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양·법·관리 능력에 기반한 국가로 전환해 나갔다.

1917 년에는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매각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방어할 수 없는 영토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린란드는 끝까지 지켜냈다. 그린란드는 버릴 수 없는 미래 옵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1953 년 이미 식민지 지위에서 벗어났고, 1979 년부터는 자치령이 되었으며, 2009 년에는 자치 정부법이 제정되면서 점차 독립을 향한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표 6. 덴마크의 주요 연표

시기	사건	의미·해설
8~11 세기	바이킹 시대	북해·발트해 해상 강국으로 성장, 초기 덴마크 왕권 형성
10~11 세기	왕권 통합·기독교화	중앙집권 국가의 기초 확립
1397 년	**칼마르 동맹** 성립	덴마크 주도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연합**
1523 년	**스웨덴 탈퇴**	**동맹 붕괴,** 덴마크-노르웨이 이중왕국 지속
1807 년	영국의 코펜하겐 폭격	나폴레옹 전쟁 중 해군 상실, 전략적 전환점
1814 년	**킬 조약**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 그린란드·아이슬란드·페로 제도 유지
1864 년	제 2 차 슐레스비히 전쟁 패배	**독일에 영토 상실,** 소국화 가속
1917 년	**버진 아일랜드** 미국에 매각	방어 불가능한 식민지 정리
1949 년	NATO 가입	집단안보 체제로 편입
1953 년	그린란드 **식민지 지위 종료**	덴마크 본토 편입
1979·2009 년	**그린란드 자치·자치권 확대**	북극 전략 자산의 제도화
21 세기	북극·그린란드 재부상	소국이지만 **전략적 레버리지 국가**로 변모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7. 그린란드의 주요 연표

시기	사건	의미·해설
기원전 수천 년	이누이트(툴레 문화의 선조) 정착	해양 포유류 수렵 기반의 극지 적응 사회 형성
약 985 년	살인 범죄로 추방된 **에릭 더 레드(Erik the Red)가 그린란드에 정착.**	중세 온난기·항해창을 활용한 남서부 정착, 바다코끼리 상아 교역. **'그린란드'라는 지명은 이민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
11~12 세기	노르드 정착촌 번영	상아 수출로 유럽 고가재화 공급망 편입
13~14 세기	기후 냉각·상아 가치 하락	**소빙기 전이, 교역 단절** → 노르드 정착촌 소멸
1721 년	덴마크-노르웨이 재식민(선교)	**근대적 덴마크 지배 확립**
1946 년	트루먼, 그린란드 매입 제안	북극 방어의 전략 거점화, 미·덴 협력 심화
1953 년	덴마크 헌법 개정, 식민지 지위 종료	덴마크 본토의 일부로 편입
1979 년	**자치정부(Home Rule) 수립**	내정 자율성 확대
2009 년	**자치권(Self-Government) 확대**	자원·사법 권한 강화, **독립 권리 명문화**
2019 년 이후	북극해 가치 급등, 미·중·러 관심 증대	희토류·항로·안보의 핵심 전략지로 재부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8. 그린란드의 주요 데이터

항목	내용
정치적 지위	덴마크 왕국 내 자치령 (Self-Governing Territory)
면적	약 216.6 만 km^2 (참고: 사우디 215 만 km^2)
총 인구	**약 57,000 명 (인구밀도 0.026 명)**
수도	누크(Nuuk), 인구 19,000 명
명목 GDP	**약 30~35 억 달러**
1 인당 GDP (명목)	약 55,000~60,000 달러
덴마크 보조금	**연간 약 6~7 억 달러 (인구수로 나누면 1 인당 $10,000)**
민족 구성	이누이트 약 85~90%, 덴마크계·기타 유럽계 10~15%
주요 언어	그린란드어(Kalaallisut), 덴마크어
종교	루터교(덴마크 국교 영향)
자치권 확대	**2009 년 Self-Government Act**
자원 권한	지하자원에 대한 관리·수익 권한 보유
독립 관련	법적으로 독립 권리 명시, 경제적 자립이 최대 과제
주요 산업	**어업, 수산, 가공: GDP·수출의 85~90% 차지 (새우·대구·넙치 등)**
	관광: 성장 중이나 계절성·인프라 제약 큼
	광업: 희토류·우라늄·아연·니켈 등 개발 초기 단계
	에너지: 화석연료 거의 없음, 수력·풍력 잠재력 큼

자료: 유진투자증권

얼음이 물러날 때, 권력은 모습을 드러낸다

인류는 지도를 자연의 산물이라 믿어왔다. 산과 바다, 얼음과 사막이 국경을 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역의 역사는 지도를 바꾸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이 허용하는 인류의 '행동 범위'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한다.

북극해는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린란드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파동으로 보인다. 기후가 완화되고, 항로가 열리며, 고가 자원이 주목받을 때 이 섬은 중심으로 떠오른다.

바다코끼리의 상아는 사라졌지만, 그 눈물은 역사의 기록과 교훈으로 남았다. 오늘날 희토류와 북극해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쟁은 그 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일지도 모른다. 가장 추운 땅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열기가 훨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09 년 발표된 'AMSA(Arctic Marine Shipping Assessment)'는 단순한 환경 보고서가 아니었다. 북극의 해빙 감소가 해상 운송과 자원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010 년대 들어서 현실이 되었다. 'Arctic Council'의 PAME 보고서들은 숫자로 그 변화를 기록했다. 2013 년에서 2024 년 사이, 북극항로에 진입한 선박은 약 37% 증가했고, 통항 거리도 늘어났다. 항로는 여전히 계절에 영향을 받았지만, 북극의 바다는 더 이상 금단의 바다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정치의 언어로 번역된다. 2008 년의 '일루리사트 선언(Ilulissat Declaration)'에서 북극 연안 5 개국은 북극해는 국제법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얼음이 녹게 되자 북극은 자연에서 정치와 권력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인 'Changes in the Arctic'는 북극을 더 이상 '기후 변화의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전략의 선택지로 규정한다. 해빙은 관심을, 관심은 정책을, 정책은 경쟁을 불러왔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아직 불완전하다. 북서항로에 대한 학술 연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듯, 북극항로는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위험은 남아 있고, 인프라는 부족하며, 계절성도 여전하다. 하지만 항로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략적 가치는 생겨난다. 선택지가 존재하는 순간, 계산은 바뀐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100 년경 북극해의 지경학적 가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지도 모른다.

북극은 차갑지만, 그 미래는 뜨거울 것

제국이라면 10~20년이 아니라 50~100년 후의 세상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냉혹한 국제질서의 세계에서 '제국은 악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기후와 북극해의 변화는 새로운 지경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얼음이 사라지면 바다가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나면 항로가 생기며, 항로가 생기면 새로운 규칙이 필요 해진다.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자가 그 바다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북극항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 지도를 지금까지 와는 다른 각도에서 펼쳐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로가 북극을 통과할 때 약 30% 짧아진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세계 지도가 아닌 새로운 각도에서의 세계 지도를 해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게 북극항로는 당장의 수익원이나 변수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래의 선택지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세계가 지경학적 대혼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만일 우리가 세계사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국제 질서가 바뀌는 거대한 시간의 출렁임을 그저 넋 놓고 구경만 하는 변두리의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

구한말의 비극은 군사력이 약해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위정자들이 기술과 자원, 항로와 세계 지경학의 변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 문제였던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복제되지는 않는다. 북극항로는 조선 말기의 철도가 아니고, 20세기의 해상 교역로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관통하는 본질은 같다.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한 국가는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다시 주변으로 밀려난다. 대한민국은 세계 6 위의 수출 강국이며 교역의 제국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역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약자 마인드를 버리고 제국의 시각에서 이러한 변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극은 차갑다. 그러나 그 미래는 뜨거울 전망이다.

지경학의 변화로 나타날 옵션 가치를 주목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지경학적 중요성 상승은 한국의 주요 산업 전반을 재평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핵심은 "항로·자원·극지 인프라·통제"가 결합되는 영역에서의 강점이 옵션 가치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표 9. 북극 항로 개발과 관련해 장기적 관심이 필요한 산업 분야

산업 분야	북극/그린란드와의 연결 고리	재평가 논리	한국 주요 관심 기업
조선·해양플랜트	쇄빙 LNG 선, 극지 상선, 극저온 구조물	보험 가능한 항로 확대 → 고사양·고신뢰 선박 수요 구조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LNG 밸류체인	북극 가스, FLNG, 극지 저장·운송	옵션 에너지 가치 상승, 위기 시 공급망 프리미엄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포스코인터내셔널
희토류·핵심광물 소재	그린란드 REE, 비중국 정제망	병목은 채굴이 아닌 정제·소재화 현실은 멀었지만 옵션 가치가 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원전·SMR·극지 전력	극지 자원 개발 전력 병목	안정적 전력 없이는 개발 불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극지 인프라·건설(EPC)	항만·연안기지·저장시설	모듈화·프리패브가 표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 에코플랜트
위성·감시·해양 데이터	항로 안전, 빙해·기상 감시	데이터가 항로의 실질 가치 결정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쎄트렉아이
물류·항만·해운	계절 항로, 환적 허브	항로 단축 → 환적·운영 가치 상승	HMM,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보험·금융	극지 항로 리스크	보험·헤지 없이는 항로 불가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한국해양진흥공사
방산·극지 안전	감시·억지·기지 보호	접근성 증가 = 안보 수요 증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자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9.30 기준)